

보성군, 농업현장 신기술 접목 전문 컨설팅 추진



오는 11월까지 농업 현장 직접 방문해 진행 전문가 재배상황 맞춰 노하우 전수 '호우'

보성군은 지난 4월부터 지역특화품목 육성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진행되는 이번 컨설팅은 단호박, 양봉, 고추, 오이 등 농작물과 한우 등 축산물에 대해 재배·사육 신기술을 보급하고, 마케팅, 유통 등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관리, 농업인 소득증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이번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되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온라인 실시간 교육과 소그룹 맞춤형 컨설팅 현장교육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품목별 농업마이스터와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현장에서 직접 재배 상황에 맞춰 노하우를 전수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점에서 농업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보성군은 동일 농가를 대상으로 2

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시켜 특화작목 육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컨설팅에 참석한 윤 모 씨는 "실제 농가 현장에서 작물상태를 확인하면서 기술들을 직접 배워 실습을 해보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추후에 있을 2차 교육도 기대가 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남은 교육 일정을 현장에서 겪는 문제점과 애로 사항 해결에 맞춰서 진행하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덕순기자

여수시 "기본형 공익직불제 5월 말까지 신청·접수 하세요"

여수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를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신청·접수한 농가는 3천188건이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2020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다. 기본형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신청하고,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1~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3년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연 120만 원이 지급된다. 소농직불금은 농가단위로 지급되므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하며, 추후 검증에 따라 소농직불금 대상 여부가 판단된다. 면적직불금은 경작면적에 따라 ha당 2ha 이하는 205만 원, 2~6ha 197만 원, 6ha 초과 189만 원(농·발전흥지역 기준)이 지급되며, 지급상한면적은 30ha(농업법인 50ha)이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시 실경작농지(면적)만 신청해야 하며,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면적 신청은 위반사항으로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으므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공익 직불금 신청 시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직불금 수령을 위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을 누락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5월 말까지 접수를 마친 후 6월 말까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등록증을 발급하고, 10월까지 실 경작여부 및 자격요건 검증 후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여수=오상호기자

순천시, 사회적경제 유통 활성화 위한 협약 체결

순천시의 사회적경제 유통 활성화를 위해 최근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센터장 김상일)와 순천농협(조합장 강성태)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역경제 발전을 핵심 가치로 둔 허석 순천시장은 방청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순천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홍보 활동 및 판로개척, 유통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에 등록된 사회적경제기업은 순천농협 조합원 수준의 저렴한 수수료로 순천농협 파머스마켓(로컬푸드 매장)에 입점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향후 유통지원센터와 순천농협은 사회적경제 분야의 공동사업 추진, 유통시장 개척, 인적 교류뿐만 아니라 미래 발전 전략 수립과 지역상생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김상일 센터장은 "순천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관심있게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석가탄신일에 떠나는 '광양사찰여행'

중흥사·성불사·운암사 등 마음 정화하고 치유되는 산사 많아

광양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석가탄신일을 맞아 역사와 문화가 깃든 고찰을 찾아 떠나는 '광양사찰여행'을 추천한다.

광양에는 중흥사, 성불사, 운암사, 옥룡사지 등 특별히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힐링할 수 있는 산사와 절터가 많다.

전통 사찰은 역사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이며, 석가

탄신일에 연출되는 형형색색의 연등행렬도 놓치지 아까운 볼거리다.

중흥사는 화엄사 말사로 도선이 운암사로 창건했는데, 통일신라시대 축조된 4km 중흥산성 안에 위치해 훗날 중흥사로 불리게 되었다.

절 마당에 있던 쌍사자석(국보 제103호)은 일본인의 반출 기도로 1918년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국립광주박물관에 보존되고 있다. 그 밖에도 삼층석탑(보물 제112호),

석조지장보살반가상(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142호) 등 귀한 유물들을 품고 있는 유서 깊은 고찰이다.

백운산 도솔봉 아래 위치한 성불사는 신라말, 조선국사가 창건한 사찰로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터만 남았던 것을 1960년, 초기삼간으로 복원했고, 불사를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다.

대웅전과 관음전, 극락전, 오층석탑, 범종각 등이 있으며, 수려한 산세와 약 2km에 달하는 깊고 맑은 성불계곡은 마음을 정화해 준다.

옥룡사 동백나무숲 오솔길이 끝나는 곳에 위치한 운암사는 창건에 대한 기록은 없고, 전경 중 소실된 것을 1993년 중건스님이 다시 일으켰다고

전해진다.

40m 규모 황동약사여래입상은 불자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운암사와 연결한 옥룡사지는 선각국사 도선이 중추해 35년간 제자를 양성하고 입적한 곳으로, 절은 불타고 터만 남았지만 뽀뽀한 동백나무와 함께 비움과 채움의 미학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간이다.

박순기 관광과장은 "이번 석가탄신일에는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저마다의 스토리를 품고 있는 광양의 전통 사찰을 방문해 지친 마음을 치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심종섭기자

"마을 주민들의 이야기를 우리 손으로 기록해요"

순천시, 마을활동 기록하는 공동체 학습모임 운영



순천시는 최근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말

견하고 수집하는 '마을기록' 교육을 진행했다.

따라서 마을에 대한 가치를 조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 대한 공동체의 관심이 증가하자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마을활동 기록 교육을 마련하여 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마을기록 교육은 기록 활동을 주로 하는 '2021 파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4강으로 구성된 강의는 '상상창작소 봄' 김정현 대표가 진행하였다.

마을기록의 의미와 중요성, 무엇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해 알

아보고 우리 마을의 이야기를 어떻게 남길 것 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마련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가한 한 주민자치위원은 "마을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결국 나와 우리 이웃임을 깨닫게 됐다. 주민이 기록하는 마을이야기야말로 진정한 마을의 모습이며 마을활동에 꼭 필요한 작업"이라며 "마을 기록물 제작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순천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마을활동을 하는 공동체의 역량강화와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기록,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비즈니스 등 다양한 교육을 월 1회 진행할 계획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인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약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간격거리를 두어 주세요!